

임실군, 민선7기 새 출발 다짐

심 민 군수, 첫 청원초회서 군정방향 및 재난사고·감염병 예방 강조

민선 7기 임실군을 이끌어 갈 심 민 호(號)가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로 힘차게 뚫을 올렸다. 지난 2일 태풍으로 인해 취임식을 취소한 임실군은 5일 전 직원 청원초회를 통해 민선 7기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임실군은 5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실과원소장, 읍면장 및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첫 청원초회를 가졌다.

심 군수는 이날 민선 7기 군정 방향과 여름철 재난사고 및 감염병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심 군수는 훈시를 통해 “군민들께서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 주신 것은, 민선 6기 4년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마쳐 임실군의 명예를 되살려 달라는 뜻인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군민과 청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심 군수는 “민선 7기에는 하나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난 4년 임실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행복한 임실로 가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군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6기의 연장선에서 함께하는 회



임실군은 5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실과원소장, 읍면장 및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7기 첫 청원초회를 가졌다.

망농업과 활력있는 지역경제, 찾아가는 맞춤형지, 품격있는 교육문화의 4대 군정방향을 유지하며 더 확실한 임실발전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신소득 작목 발굴 및 농산물 가공식품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 환경 조성 ▲임실N치즈축제와 옥정호·성수산 개발 500만 관광시대 ▲어르신 효심행정 강화 ▲봉황인재학당 등 수준 높은 교육 환경 ▲12개 읍면 소재지 기초생활거점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심 군수는 “떠나는 임실이 아닌 젊은 층이 찾아오는 활력이 넘치는 임실로 만들어 가겠다”며 “지난 4년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초심을 잃지 않고, 낙후된 임실을 일으켜 세우는데 제가 가진 모든 열정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청원초회에서는 모범 공무원을 비롯한 군정발전유공, SNS홍보 유공 및 모범이장, 새마을부녀회장 등 표창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생활문화예술동호회 댄스페스티벌

7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시계탑 광장서 열려

임실군은 오는 7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시계탑 광장에서 제2회 전라북도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댄스페스티벌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행사는 사)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과 임실군이 후원하는 행사로 전북도내 14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댄스동호회 12팀이 참가한다.

먼저 본 행사에 앞서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오프닝 행사는 해피투게더 통기타동호회를 시작으로 스타드립 색소폰동호회, 아라리안타동호회 등 총 7팀의 동호회가 출연해 열기를 더해준다.

이어서 순창의 앤팰댄스동호회와 군산의 이리스밸리댄스동호회

를 시작으로 총 12팀의 다양한 장르의 댄스동호회가 춤사위를 선보인다.

특히 임실장승동호회와 섬진강뒤편꽃차동호회 등 5팀의 작품판매와 체험 진행은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송병섭 이사장은 “임실치즈테마파크 활성화와 전북도내 댄스동호회의 소통과 문화교류 사업을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며 “즐거운 주말을 맞아 가족과 연인들이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찾아와 보고 느끼며 즐거운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 해피 스틸하우스 47호 착공

남원시는 지난해 말 화재로 인해 주거공간을 소실한 금지면 방촌마을의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해피 스틸하우스를 오는 11일 착공해 19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피 스틸하우스(Happy Steel House) 사업은 포스코와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주관하며 한국철강협회의 소방청, 사회복자공동모금회가 후원하여 40㎡내외(12평 내외)의 건축비 7000만원 상당의 스틸하우스를 건축해주는 사업이다.

해피 스틸하우스 47호에 선정된 금지면 서 모(75세·여) 어르신은 컨테이너에 거주하며 난방을 전기 난로로 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말 전기장판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 집이 전소됐으며, 그동안 헛간을 주택으로 개조(3평)해 지내왔지만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신축이 절실한 상태로 남원시에서는 어르신의 이러한 상황을 주관 기관에 알려 수혜대상자로 최종 선발됐다.

스틸하우스는 포스코가 개발한 '포스맥(PosMAC)'이라는 건축자재를 사용해 스테인리스보다 5배나 강한 특수강으로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으며 화재에 강해 주거 성능이 우수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8대 순창군의회 개원... 의정활동 시작

의장·부의장 등 선출

순창군의회는 5일 제232회 임시회와 개원식을 시작으로 4년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제8대 군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임시회로 제8대 순창군의회 전반기가 이끌어갈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의장에는 정성균 의원, 부의장에는 신정아 의원, 운영행정위원장은 이기자 의원, 산업복지위원장은 손종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정성균 의장은 당선인사에서 “의장에 당선된 기쁨보다는 순창 발전과 군민을 위해 소중함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열린의회,



정성균 의장



신정아 부의장



이기자 운영행정위원장



손종석 산업복지위원장

열린의정을 통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 군민 위주의 현장 의정활동,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 수행과 서로 협력하는 의회가 될 것”을 피력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하반기 주요업무 발 빠르게 챙겨

현안사업 등 대응방안 논의

이환주 남원시장은 민선7기 남원시정의 힘찬 출발을 위해 5일부터 총무과를 시작으로 분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 대한 2018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등 현안 업무를 발 빠르게 챙기고 있으며, 보고회는 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상반기 추진 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 점검과 쟁점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현안사업 위주로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해 누수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기며 앞으로 대응해야 할 방안을 시장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며 시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남원시는 보고회를 통해 상반기 추진실적과 성과,



이환주 남원시장은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미흡한 분야를 철저히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민선7기 시정방향과 정책기조를 조기에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선 5기·6기 시절 이뤄놓은

밀거름을 바탕으로 한단계 도약된 남원 건설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대안을 마련해 좀 더 공격적인 업무 추진 자세를 요구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간담회

남원시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6개소의 제공기관 대표자 및 관리자 등 19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2018년 남원시 지역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방향 안내 및 주요 지침 변경 사항과 서비스 대상 실무 안전 등이 논의와 남원시 희망복지지원단 담당자와의 실무안

건 논의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해 제공기관 간 사업현황,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상호 정보 교류 형성의 기회를 가졌다.

지역사회투자사업은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바우처 방식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금년에 11억 4천만원을 투입해 영유아발달서비스 등 12개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